

# 결혼이민자의 결혼과정과 적응

- 대정읍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

## A Marriage Processing and Adaption about Immigrant Intermarriage

- In Daejungeup case -

정 영 태\*(Jung yungtae)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이론적 배경
- III. 대정읍 결혼이민자 실태
- IV.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제언
- V. 나오며

## I. 들어가는 말

전 세계적으로 일 년에 1억9천명 이상의 인구가 자기 나라를 떠나 이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65~70%가 생계유지나 새로운 일자리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주와 관련되어 이주자의 70%가 여성으로 이미 ‘이주의 여성화’는 일상화되었다.

---

\* 본원 초빙연구원

여성 이주의 두 가지는 노동과 상품화로 설명된다. 즉 여성들 대부분이 가사노동, 제조업 등과 관련된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와, 또 다른 하나는 여성의 몸이 타자화 되어 국제결혼과 성산업 등의 영역으로 이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 여성을 자신의 배우자로 맞고자 하는 남성의 증가와 함께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동반되면서 혼인에 있어 국제결혼의 증가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염, 2007).

한국사회에 있어 결혼이민자가족은 새로운 집단으로써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지금까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에 강하게 젖어있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변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주가 아닌 국민 혹은 시민으로 살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이민자의 증가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공존의 의미를 넘어 다양성과 개방성의 가치로 인식되고 단일문화 사회의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로 견인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39,360건으로 2006년 말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3,576건의 혼인 이 가운데 국제결혼이 27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은 20.9%로 제주자치도내 국제결혼을 한 남성 10명 가운데 2명의 남성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외국인 아내의 급증과 함께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과 결혼이민자들의 인권침해적인 결혼과정, 가부장 중심의 가족생활, 초국가적 이동에 따른 문화적 차이와 인종적·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007~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의 수립에 있어 다양한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확대에 있어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여성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는 일정기간을 정주하고 다시 돌아가는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와는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혼이민자 가운데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어 지역에 영구히 정착하게

된다는 점에서 강한 차별성을 드러냄에 따라 이들을 위하여 마련되는 정책은 기존의 동화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적응중심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에 있어 결혼이민자의 적응과 관련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대상자는 제주자치도 대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된 제언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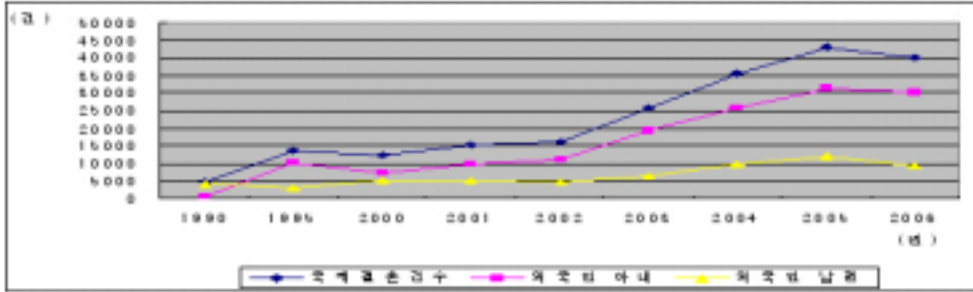
## II. 이론적 배경

### 1. 결혼이민자 현황

#### 가. 결혼이민자 현황

우리나라에 있어 국제결혼은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어져 왔다. 2006년 총 혼인건수 332,725건 가운데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39,690건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건수는 30,208건이며, 외국인 남편은 9,482건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1990년 이전 국제결혼 양상은 한국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으로 미국·일본 등 외국남성과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다. 1990년 이후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90년대는 종교(통일교)를 중심으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690명이 대규모 국제결혼을 하였으며, '95년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농촌총각을 구제하기 위하여 한국계 중국동포 여성 1만명 이상이 유입되면서 국제결혼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통계청, 2006년3월 보도자료).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비율이 외국인 남성 배우자 비율의 3배가 되는 2001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여성 배우자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2006년 통계에서 외국인 남성 배우자의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추이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에서 초기 선호한 국가는 중국 동북 3성의 한국계중국인으로 비교적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결혼 배우자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등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밖에 몽골,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과의 결혼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제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지형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등으로 이는 결혼의 경사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1>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율
총 계	7,304 (100.0)	10,006 (100.0)	11,017 (100.0)	19,214 (100.0)	25,594 (100.0)	31,180 (100.0)	30,208 (100.0)	100	-3.1
중 국	3,586 (49.1)	7,001 (70.0)	7,041 (63.9)	13,373 (69.6)	18,527 (72.4)	20,635 (66.2)	14,608 (48.4)	48.4	-29.2
베 트 남	95 (1.3)	134 (1.3)	476 (4.3)	1,403 (7.3)	2,462 (9.6)	5,822 (18.7)	10,131 (33.5)	33.5	74.0
일 본	1,131 (15.5)	976 (9.8)	959 (8.7)	1,242 (6.5)	1,224 (4.8)	1,255 (4.0)	1,484 (4.9)	4.9	18.2
필 리 핀	1,358 (18.6)	510 (5.1)	850 (7.7)	944 (4.9)	964 (3.8)	997 (3.2)	1,157 (3.8)	3.8	16.0
몽 골	77 (1.0)	118 (1.2)	195 (1.8)	318 (1.7)	504 (2.0)	561 (1.8)	594 (2.0)	2.0	5.9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3	151.0
미 국	235 (3.2)	265 (2.6)	267 (2.4)	323 (1.7)	344 (1.3)	285 (0.9)	334 (1.1)	1.1	17.2
우즈베키스탄	43 (0.6)	66 (0.7)	183 (1.7)	329 (1.7)	247 (1.0)	333 (1.1)	314 (1.0)	1.0	-5.7
기 타	509 (7.0)	751 (7.5)	716 (6.5)	936 (4.8)	996 (3.8)	1,022 (3.2)	1,421 (4.7)	3.9	5.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2007.  
\*는 2002년까지 기타국에 포함되었음.

여성결혼이민자의 2006년 시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20.4%, 경기 21.5%, 인천 5.2%로 수도권 지역에 47.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에 50% 가까이 살고 있으며, 기타 지역 도시권 25%, 농어촌 25% 등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있어 25%인 농어촌지역의 경우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도별 국적별 현황(2006)

(단위 : 명)

구분	전체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고	기타
계	30,208	1,484	14,608	334	1,157	10,131	273	206	594	1,421
서울	6,168	268	4,214	123	159	880	48	50	100	326
부산	1,466	51	639	7	48	594	16	30	16	65
대구	1,070	18	423	7	24	528	12	11	8	39
인천	1,572	40	1,040	13	53	291	12	10	33	80
광주	643	12	303	4	26	249	4	2	17	26
대전	687	13	342	4	35	225	2	3	10	53
울산	620	4	170	2	21	381	3	4	14	21
경기	6,492	167	3,847	71	220	1,565	76	59	151	336
강원	795	20	321	3	46	347	6	2	9	41
충북	953	17	378	6	49	387	12	6	67	31
충남	1,472	37	569	6	129	604	14	5	37	71
전북	1,343	34	539	3	87	578	8	7	29	58
전남	1,582	29	490	4	72	888	11	1	45	42
경북	1,885	34	542	8	54	1,139	17	3	23	65
경남	2,240	41	601	2	64	1,355	25	8	33	111
<b>제주</b>	<b>277</b>	<b>13</b>	<b>119</b>	<b>2</b>	<b>16</b>	<b>114</b>	<b>2</b>	<b>2</b>	<b>2</b>	<b>7</b>
국외	943	686	71	69	54	6	5	3	0	4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2007.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자와의 혼인 연령차는 11.5세로 한국인의 남녀 부부의 혼인 연령차인 2.4세 보다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단위 :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남자 + 외국 여자	6.7	7.4	7.8	8.2	8.3	9.1	11.5
한국 여자 + 외국 남자	6.5	6.5	5.2	4.1	3.1	2.7	4.1
한국 남자 + 한국 여자	2.7	2.6	2.6	2.6	2.6	2.5	2.4

자료 : 통계청 2006 혼인통계결과, 2007(재구성)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4,010건으로 전년보다 64.1% 증가하였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실태에 있어 2005년 이전까지는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의 이혼건수가 비교적 많았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이혼(A)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 외국인과의 총 이혼(B=C+D)	1,866	2,164	3,400	4,278	6,280
총 이혼 대비 구성비(B/A)	1.3	1.3	2.4	3.3	5.0
증 감	-	298	1,236	878	2,002
증 감 률	-	16.0	57.1	25.8	46.8
▪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C)	401	583	1,611	2,444	4,010
총 이혼 대비 구성비(C/A)	0.3	0.3	1.2	1.9	3.2
증 감 률	-	45.4	176.3	51.7	64.1
▪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D)	1,465	1,581	1,789	1,834	2,270
총 이혼 대비 구성비(D/A)	1.0	0.9	1.3	1.4	1.8
증 감 률	-	7.9	13.2	2.5	23.8

## 나.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결혼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421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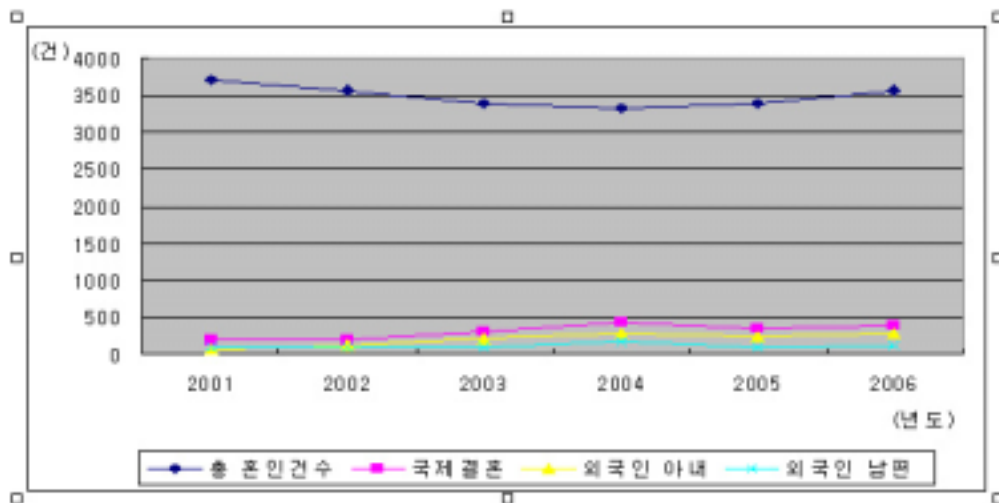
서 2005년 328건으로 22% 감소하였으나, 2006년 379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5>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추이(2001~2006)

(단위 : 건)

연도	총 혼인	국제결혼	외국인아내	외국인남편
2001	3,708	173	76	97
2002	3,574	190	105	85
2003	3,379	294	202	92
2004	3,325	421	268	153
2005	3,382	327	231	97
2006	3,576	379	277	102

\*자료 : 통계청, www.kosis.kr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추이

<표 6> 제주특별자치도 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적별 혼인 현황 (2001~2006)

(단위 : 건,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총 계	10,006 (100.0)	76 (100.0)	11,017 (100.0)	105 (100.0)	19,214 (100.0)	202 (100.0)	25,594 (100.0)	268 (100.0)	31,180 (100.0)	231 (100.0)	30,208 (100.0)	277 (100.0)
일본	976 ( 9.8)	10 ( 13.2)	959 ( 8.7)	11 ( 10.4)	1,242 ( 6.5)	9 ( 2.5)	1,224 ( 4.8)	13 ( 4.9)	1,255 ( 4.0)	16 ( 6.9)	1,484 ( 4.9)	13 ( 4.7)
중국	7001 ( 70.0)	54 ( 71.1)	7,041 ( 63.9)	73 ( 69.5)	13,373 ( 69.6)	142 ( 70.3)	18,527 ( 72.4)	204 ( 76.1)	20,635 ( 66.2)	129 ( 55.8)	14,608 ( 48.4)	119 ( 43.0)
미국	265 ( 2.6)	1 ( 1.3)	267 ( 2.4)	1 ( 1.0)	323 ( 1.7)	1 ( 0.5)	344 ( 1.3)	2 ( 0.8)	285 ( 0.9)	3 ( 1.3)	334 ( 1.1)	2 ( 0.7)
필리핀	510 ( 5.1)	5 ( 6.6)	850 ( 7.7)	9 ( 8.5)	944 ( 4.9)	13 ( 6.4)	964 ( 3.8)	14 ( 5.2)	997 ( 3.2)	15 ( 6.5)	1,157 ( 3.8)	16 ( 5.8)
베트남	134 ( 1.3)		476 ( 4.3)	2 ( 1.9)	1,403 ( 7.3)	28 ( 13.9)	2,462 ( 9.6)	25 ( 9.3)	5,822 ( 18.7)	56 ( 24.2)	10,131 ( 33.5)	114 ( 41.2)
태국	185 ( 1.8)	1 ( 1.3)	330 ( 3.0)	1 ( 1.0)	346 ( 1.8)	1 ( 0.5)	326 ( 1.3)	1 ( 0.4)	270 ( 0.9)	2 ( 0.8)	273 ( 0.9)	2 ( 0.7)
러시아	157 ( 1.6)	3 ( 3.9)	241 ( 2.1)	2 ( 1.9)	297 ( 1.5)	1 ( 0.5)	318 ( 1.2)	4 ( 4.0)	231 ( 0.7)	2 ( 0.8)	206 ( 0.7)	2 ( 0.7)
몽골	118 ( 1.2)		195 ( 1.8)	1 ( 1.0)	318 ( 1.7)	1 ( 0.5)	504 ( 2.0)		561 ( 1.8)	2 ( 0.8)	594 ( 2.0)	2 ( 0.7)
기타	660 ( 6.6)	2 ( 2.6)	658 ( 6.0)	5 ( 4.8)	968 ( 5.0)	6 ( 3.0)	925 ( 3.6)	5 ( 1.9)	1,119 ( 3.6)	6 ( 3.0)	1,421 ( 4.7)	7 ( 2.5)

자료 : 통계청 <http://kosis.kr>. 인구동태조사(혼인) 2001~2006. 재구성

<표6>을 보면 국제결혼의 여성 출신국에 있어 전국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으로 출신국별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결혼에 따른 최근 3년의 이혼통계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28건에서 2006년 5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613건의 이혼에 있어 4.9%인 79건의 이혼으로 2002년 1.6건에 불과하던 이혼율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표 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에 따른 이혼추이(2002~2006)

(단위 : 건)

연도	총 이혼	국제결혼에 따른 이혼	외국인처와의 이혼	외국인남편과의 이혼
2002	1,962	32	9	23
2003	2,177	31	9	22
2004	1,777	63	28	35
2005	1,663	60	35	25
2006	1,613	79	50	29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결혼에 따른 최근 3년의 이혼 통계를 통해 육지부의 이혼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이혼에 있어 가장 많은 이혼 건수는 중국출신 여성과의 이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제주특별자치도 남성과 여성의 국적별 이혼 현황 (2004~2006)

(단위 : 건,%)

구 분	2004		2005		2006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총 계	1,611 (100.0)	28 (100.0)	2,444 (100.0)	35 (100.0)	4,010 (100.0)	50 (100.0)
중국	841 ( 52.2)	17 ( 60.7)	1,431 ( 58.6)	29 ( 82.9)	2,551 ( 63.6)	34 ( 68.0)
베트남	147 ( 9.1)	1 ( 3.6)	289 ( 11.8)	2 ( 5.7)	610 ( 15.2)	7 ( 14.0)
필리핀	112 ( 7.0)	2 ( 7.1)	142 ( 5.8)		171 ( 4.3)	1 ( 4.0)
일본	145 ( 9.0)	4 ( 14.3)	168 ( 6.9)	2 ( 5.7)	202 ( 5.0)	3 ( 6.0)
기타	366 (22.7)	4 ( 14.3)	414 ( 16.9)	2 ( 5.7)	476 ( 11.9)	5 ( 10.0)

자료 : 통계청 <http://kosis.kr>. 인구동태조사(이혼) 2004~2006. 재구성

## 2. 결혼이민자 연구 및 정책 동향

결혼이민자 연구 동향은 결혼이민자 증가 추이와 유사하게 수행되었다. 초기 결혼이민자 연구는 미군 혹은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인 이들은 주로 기지촌 출신의 여성으로 미국 사회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또 다른 측면은 농촌의 가난한 딸이 일본으로 결혼이주를 떠나는 것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결혼이민자 연구는 각광받는 주제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고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사회단체와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사회단체들이 생겨나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논의들이 새롭게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부부폭력, 외국인 주부 실태, 결혼알선업자에 대한 연구, 한일 국제결혼,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동포 여성에 대한 연구, 매매혼으로써의 국제결혼, 국제결혼을 통한 농촌여성의 삶 등을 다양한 주제들이 설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정부는 2006년 4월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5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교육인적자원부),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외국인정책위원회)등을 발표하면서 국제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통과되어 7월부터 시행되면서 단일민족의 순혈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에 대한 통제와 관리 중심의 이민정책이 사회통합, 다민족, 다문화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제결혼 중개법」 등이 발의되어 있으며, 지자체 중심의 국제결혼가족 관련 지원 조례 움직임 등 법적 기반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들의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과 산전·후도우미 및 아동양육 도우미 파견 등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찾아가는 정책 서비스를 발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서울 3개소, 부산 2개소, 대구 2개소, 인천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울산 1개소, 경기 4개소, 강원 2개소, 경북 4개소, 경남 3개소, 충북 2개소, 충남 3개소, 전북 3개소, 전남 4개소, 제주 1개소 등 38개소(2007.3현재)가 활발한 운영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2007년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5년간 국제결혼이민자 관련 7대 주요 정책영역과 17개 세부 정책과제로 나뉘어 결혼이민자가족을 지원할 것을 밝히는 등 지자체 수준에서 이주민과 지역민의 소통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정부·지자체·연구분야 등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행정내부통계(2006년 비공표)와, 2007년 9월 결혼이민자 전수조사 실시 결혼이민자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결혼이민자 연구는 젠더입장에서의 접근으로 남성이민자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성 평등성을 높이는 노력이 수반되었다.

### Ⅲ. 대정읍 결혼이민자 실태

대정읍은 6,619세대, 남자 8,754명(50.7%), 여자 8,526명(49.3%)으로 총 인구 17,280명이다. 대정읍의 여성결혼이민자는 38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애월읍의 82명을 제외하고 여성 결혼이민자가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다.

대정읍의 여성결혼이민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은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제주시권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애월읍 등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교육이나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사회단체나 기관들이 30분 정도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배우자 혹은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음)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나 서귀포권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이동권의 제한 등으로 관련 교육 수강 등에 있어 제약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자치도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결혼과정과 지역 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대정읍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대정읍의 여성결혼이민자는 모두 38명으로 중국출신(한국계 포함) 20명, 베트남출신 15명, 일본출신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면접조사를 실시한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가. 조사개요

- 예비조사 : 2007. 11. 12~16. 대정읍 결혼이민자 현황 조사
- 본조사 : 2007. 11. 24. 대정읍(여성농업인센터)
- 조사대상 : 베트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12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

## 나.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면접에 응답한 대상자는 모두 12명으로 베트남출신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결혼연도는 2005년 4명, 2006년 4명, 2007년 5명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만 24세이며, 배우자의 평균 연령 39세로 결혼이민자 부부의 평균 연령 격차는 15세이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 결혼이민자 부부의 평균 연령차가 8세인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운 나이 차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연구 대상의 일반적 현황

성명	국적	결혼연도	여성이민자출생연도	배우자출생연도	나이차	출산자녀(명)
a	베트남	2007	1988	1974	14	-
b	베트남	2005	1980	1966	14	1
c	베트남	2007	1985	1975	10	-
d	베트남	2007	1983	1970	13	1
e	베트남	2005	1986	1964	16	1
f	베트남	2005	1987	1970	17	-
g	베트남	2006	1985	1970	15	1
h	베트남	2006	1980	1966	14	1
i	베트남	2006	1987	1969	18	-
j	베트남	2007	1976	1969	7	-
k	베트남	2007	1974	1957	17	-
l	베트남	2005	1987	1973	14	1

## 다. 결혼과정

면접에 응답한 대상자의 혼인과정은 모두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잘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라고 답하였다.

이들의 결혼과정에서 결혼중개업소의 중개를 통해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매매혼의 성격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일부 편견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들이 결혼중개업소를 거치면서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데 배우자의 정보와 실제 정보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에게 향후 한국인과의 결혼 권장에 대하여 질문하자 매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배우자에 대한 감정은 매우 자상한 남편, 좋은 남편으로 인식되어 있다. 베트남과 유사한 농촌의 특성상 남편과의 좋은 관계가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10> 결혼과정과 결혼 동기

(단위 : 명)

구분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
N	12	12

## 라. 학력 및 직업 부문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2명, 중학교 중퇴 5명, 중학교 졸업 2명, 고등학교 중퇴 1명, 고등학교 졸업 1명 등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국에서의 직업 역시 농림어업에 종사하거나 가사 등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국에서 직업을 갖기 희망하며 대부분 단순노동을 선호하며, 이는 학력과 언어 수준 등에서 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의 학력은 고졸이 9명, 대학교 중퇴 1명, 대졸 2명 등으로 배우자의 학력과 격차가 있으나 심각한 부부 갈등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배우자의 직업 역시 농림어업에 종사한다고 6명이 응답하였다. 무응답의 경우 역시 농림어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 생활을 중심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하다.

#### 마.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 인지 여부

지역사회 적응을 묻기 위하여 이들이 지역의 공공기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최근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의 도움 없이 지역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제주 시내나 서귀포 시내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어 관련 강좌, 한국문화 관련 강좌들을 쉽게 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이 강좌 개설을 희망하면서도 개설 강좌정보에 대한 부족을 호소하였다. 실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강좌를 매우 선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강좌가 시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결혼기간이 3년 미만으로 자녀들이 어리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실정으로 수강을 위해 개별 이동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교육받은 내용과 기간은 한국어교육이 1달 미만에 그침에 따라 한국어나 가족문화, 한국 문화, 지역 문화 등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어렵고,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일상생활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교육 등의 확대가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바. 주택 상태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결혼이민자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주택상태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며, 주택상태 역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생활부분에서 모두 80%

이상 긍정적인 응답으로 이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의 생활환경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주택 상태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단위 : 명, %)

성명	주택상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양호	보통	무응답	만족	보통
N(100)	4(33.3)	7(58.4)	1(8.3)	10(83.3)	2(16.7)

### 사. 월평균 소득

결혼이민자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70만원 2명, 80만원 3명, 100만원 4명, 120만원 2명, 150만원 1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은 975,000원으로 4인 가구 2007년 최저생계비 1,232,569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응답자 모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월평균 수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단위 : 원)

구분	70만원	80만원	100만원	120	150
N	2	3	4	2	1

## IV.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제언

지금까지 대정읍의 결혼이민자 결혼과정과 생활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가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여성과의 이혼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개소, 다양한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등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결혼이민자를 동화하는 정책이 아닌 적응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한다는데 있다. 결혼이민자 정책은 적응이 아닌 동화중심의 정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따라서 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조사를 통해 농촌중심의 결혼이민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1. 결혼이민자 가족 중심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결혼이민자 가족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가치관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제주자치도의 경우 도시권에 있어 여성동장이 있으나, 읍면동으로 내려갈수록 마을 이장은 모두 남성으로 선출되고 있다. 문제는 남성의 선출이 지역에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인식으로 책임을 지는 영역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가부장적 사고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농촌으로 갈수록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결국 농촌의 가부장제의 문화는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 온 부부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가족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 구성원의 의식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 2. 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 지원제도 매뉴얼 마련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 교육이 매우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각 다른 기관들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기보다 수혜자 역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을 위해서 지원제도를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의 학습 프로파일(profile)을 통해 진척도 등을 점검하고 사회에 적응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매뉴얼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자아를 형성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 3. 결혼이민자의 지원정책의 일원화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결혼이민자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혼선보다 정책의 중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2006년 제주자치도의 결혼이민자 대상 문화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수행된 것이 “김치만들기” 프로그램과 “전통알기”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이 행사일자만 달리함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 결혼이민자 여성 역시 대부분 중복되어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이는 예산 지출에 있어 비효율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의 독점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초기 단계에 있어 다양한 정책의 실험보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통해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의 일원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 V. 나오며

지금까지 대정읍 여성결혼이민자를 바탕으로 농촌 중심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의 제언을 하였다.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와 함께 최근 가장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 대상이다.

결혼이민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내 폭력, 국적 취득의 어려움, 가게 경제의 곤란함, 언어 소통의 어려움, 문화 적응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결혼이민자 정책은 기존의 육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정책과는 다른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주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유행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미래를 디자인 하는 중요한 인적지원을 발굴하고, 지역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다. 결혼이민자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김영란. 정영태 외. 2007.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4개년 계획 2007~2010」.  
제주특별자치도.
- 정기선 외. 2007.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장단기 계획」. (재)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 설동훈 외. 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양순미. 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적응지원 정책 개발”,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 2006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조사.
- 통계청. www.kosis.kr.
- 한국염. 2007. “한국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현황과 과제”.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본 이주 결혼」. 한일연속심포지엄 in seoul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아  
사아여성학센터.

